배우 교체에도 자신감 그대로… '막장 열차'는 멈출 수 없다

임성한 작가 '결혼작사 이혼작곡3' 시청률 6.3%로 출발
지영산·강신효·이혜숙 새로 합류…전노민·이민영 출연도
30·40·50대 주인공이 남편 불륜 겪으며 벌이는 이야기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3'의 배우(왼쪽부터) 전수경, 이가령, 박주미, 이민영, 이혜숙.

남편의 외도와 막 나가는 시어머니, 이를 응징하는 아내. 격렬한 이야기로 인기를 끌어온 임성한 작가의 '결혼작사 이혼작곡3'이 세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2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된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3' 첫 회 시청률은 1부 5.2%, 2부 6.3%(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4%대 시청률로 출발한 시즌2보다는 높은 성적이지만, 시즌2 자체 최고 시청률 1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30대, 40대, 50대의 세 주인공이 남편의 불륜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시즌3에서는 이혼 후 싱글로 돌아온 맏언니인 라디오 작가 이시은(전수경)과 라디오PD 사피영(박주미 분)의 달라진 위치와 얽히고설킨 감정선이 부각됐다.

사피영은 전 시어머니인 김동미(이혜숙)와 격렬한 '고부대첩'을 벌이며 갈등을 고조시켰고, 바람을 피운 전 남편 신유신(지영산)에게도 속 시원하게 잘못을 꼬집는 발언을 퍼부었다.

이시은은 베일에 싸인 인물인 서반(문성호)에게 두 사람이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이상기류를 예고했고, 라디오 DJ 부혜령(이가령)의 전 남편인 판사현(강신효)과 새 연인 송원(이민영)의 출산 이야기도 담겼다.

지난 시즌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성한 작가 특유의 예측불허 전개나 카타르시스를 터트리는 대사들은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막장' 드라마 특유의 흡입력을 보여줬다.

첫방송 전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사피영 역을 맡은 박주미는 "회차가 지날수록 더 궁금한 내용이다. 매회 '엔딩 맛집'이 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혜령 역을 맡은 이가령도 "다음 회차 대본을 받아보면 항상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나온다. 이번 시즌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역의 전수경은 "시즌 1과 2에 음식 재료를 풀어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빨리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시즌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충격으로 함묵증에 걸린 연기, 남편과의 대화만으로 드라마 한 회(약 70분)를 온전히 장악한 모습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박주미는 "이번 시즌도 기대하셔도 좋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한 만큼 이들이 극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즌 1과 2에서 신유신, 판사현, 김동미 역을 맡았던 이태곤, 성훈, 김보연이 하차하면서 세 명의 배우가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신유신 역은 지영산, 판사현 역은 강신효, 김동미 역은 이혜숙이 연기한다.

세 배우는 모두 "화제작인 만큼 부담이 컸지만 작가님과 PD님, 상대 배우분들이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즌 1과 2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남편을 외면하는 등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김보연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 이혜숙은 "보연 선배님이 뛰어넘을 수 없는 연기를 해주셔서 두려움도 많았다"면서도 "이혜숙만의 색과 연기폭이 김동미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찍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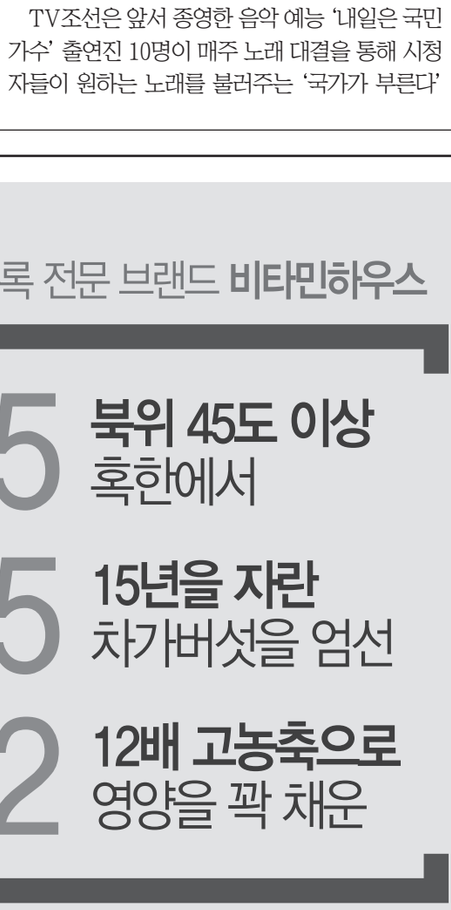
시즌 3의 연출을 새롭게 맡게 된 오상원 PD는 "이번 시즌은 세 명의 여주인공들이 진실한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보이는 통쾌함이 재미"라면서 "동치미처럼 속이 확 뚫리는 맛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결혼작사 이혼작곡3'에는 이밖에 전노민,이민영, 송지인, 임혜영, 문성호, 부배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스포츠·슈퍼·떡볶이 장사에 신청곡 불러주고…

'국가가 부른다' '디 오리진' 등
예능 프로 시청자 잡기 각축전



tvN 예능 '어쩌다 사장' 시즌2

음악과 스포츠, 장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첫선을 보이며 시청자를 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방송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개 남짓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줄줄이 론칭했다.

과거 예능이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각종 게임을 수행하는 버라이어티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다채로운 매력을 표방한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남성 출연자가 대다수였던 스포츠 예능은 SBS '골때리는 여자들' 이후 여성들로 바뀌는 흐름이 뚜렷하다.

JTBC는 신규 스포츠 예능으로 여자 연예인들로 농구팀을 구성한 '언니들이 뛴다- 마녀체력 농구부'를 15일 처음 방송했다. 첫 회 시청률은 3.3%로 다소 부진했지만, 임수향과 별, 송은이, 장도연 등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낳았다.

음악 예능은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TV조선은 앞서 종영한 음악 예능 '내일은 국민가수' 출연진 10명이 매주 노래 대결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국가가 부른다'를 17일 새로 선보였고, MBN은 카카오TV와 함께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디 오리진'을 26일 시작했다.

연예인들이 사장으로 변신해 장사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예능도 나영석 PD가 연출했던 tvN '윤식당' 이후 사랑받는 주제다.

tvN은 차태현과 조인성이 시골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예능 '어쩌다 사장' 시즌2를 지난 17일 첫 방송 했고, MBC에브리원은 김종민과 지석진, 이이경 등이 떡볶이집 장사를 하는 '떡볶이집 그 오빠'를 지난 15일 선보였다.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이나 범죄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을 분석하는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도 인기 있는 포맷으로 예능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다.

SBS는 한가인, 이승기, 오은영 박사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 '써클 하우스'를 24일 방송했다.

채널A는 범죄 사건을 분석하는 새 예능 '블랙: 악마를 보았다'를 23일 공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등이 출연해 범죄자의 내면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데뷔 55년 나훈아, 이번엔 춤
첫 댄스 뮤직비디오 '체인지' 공개

가수 나훈아가 데뷔 5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댄스 뮤직비디오 '체인지'(Change·사진)를 공개했다고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밝혔다.

'체인지'는 나훈아 55주년 기념 음반 '일곱 빛 향기' 수록곡으로, 마술 같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은 EDM 스타일의 곡이다.

뮤직비디오에는 유명 팝핑 댄스 크루 '월드 페임 어스'(WORLD FAME US)가 출연한다.

나훈아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한국형 무협 판타지 장르의 '맞짱'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